



# 국제 농업 정보 : 미국

## 1 미국 가족농 경제 현황<sup>1)</sup>

- 미국 가족농은 전체 농가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물 중 87%를 생산함.
- 전체 농지 중 소규모 가족농이 경작하는 비중은 2011년에 52%에서 2020년 기준 48%로 감소하였고, 대규모 가족농의 생산량 비중은 2020년 기준 전체 농업 생산량의 46%를 차지함. 2011년의 35%보다 증가하였음.

| 미국의 가족농 구분 |

구분	종류	정의	
가족농	은퇴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은퇴 이후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li> <li>- 21만 9,288개 농가, 10.9%</li> </ul>	
	소규모 가족농	겸업농 (농업이 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이 아닌 직업이 주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농가</li> <li>- 77만 9,767개 농가, 38.8%</li> </ul>
		겸업농 (농업이 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판매) 15만 달러 미만 농가소득</li> <li>- 68만 3,514개 농가, 34.0%</li> <li>• (중규모 판매) 15만 달러 이상, 35만 달러 미만 농가소득</li> <li>- 11만 865개 농가, 5.5%</li> </ul>
	중규모 가족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농가소득</li> <li>- 11만 2,122개 농가, 5.6%</li> </ul>	
	대규모 가족농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농가소득</li> <li>- 5만 1,708개 농가, 2.6%</li> </ul>
		초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만 달러 이상 농가소득</li> <li>- 6,124개 농가, 0.3%</li> </ul>
비가족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주와 경영주 친족이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농가※</li> <li>※ 친족 관계가 아닌 농가들의 파트너십, 협동조합, 소유자에게 고용된 노동력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li> <li>- 4만 7,275개 농가, 2.4%</li> </ul>		

- 소규모 가족농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 대규모 농가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함.
- 전체 농가 중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고위험 농가는 73.2%임. 특히, 소규모 가족농일수록 더욱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21 Edition"(2021.1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 국제 농업 정보 : 미국

- 2020년에 소규모 가족농을 구성하는 소규모 판매 농가(83.0%), 겸업농 중 농업이 부업인 농가(79.2%) 등은 전체 평균보다 고위험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농의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
  - **(고용 악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1%의 가족농이 구성원의 실직을 경험하였으며, 소규모 가족농에서 고용 위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
  - **(직거래 증가와 유통 채널 변화)** 직거래(direct sales)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35% 증가하여, 약 1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함. 농가 판매, 공동체지원농업 등 대부분의 직거래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는 증가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폐쇄로 인해 기관 혹은 단체에 직접 판매한 금액은 86% 감소하였음.
- 가족농은 정부로부터 직불금 및 연방 정부 작물 보험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됨.
  - **(보전유보제도, CRP)** 81%의 소규모 가족농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생산에서 배제하는 CRP에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그 농지에서 경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의 68%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음.
  - 품목 및 기타 직불, 농업재해프로그램, 지역의 농가지원프로그램 등은 생산액에 비례하여 지급됨.
  - 소규모 가족농은 코로나19 관련 농무부 지원액의 16%와 기타 정부 지원의 2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가족농은 농무부 지원액의 52%, 기타 정부 지원의 44%를 받음.
  - 코로나19 지원액 중 가족농이 받은 지원금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CFAP)이며, 이외에도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경제적 피해 관련 자금 대출(EIDL) 등이 있음.
  - 14%의 농가가 연방 작물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중, 대규모 가족농은 전체 가입 면적의 6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 보상금의 77%를 수령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 농업 정보 : 미국

### 2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 확대<sup>2)</sup>

-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은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정책 중 하나로 2022년에 더욱 강화된 계획이 발표됨.
  - 미국 농무부의 자연자원보존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에서 운영하는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은 자발적 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저감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임.
  -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는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피복 작물 프로그램(Pandemic Cover Crop Program, PCCP)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복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함.
  -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과 보전책임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생산자들이 더 편하게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은 주별로 지정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을 하는 농가에 재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은 적정한 농지를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농가, 목장주, 산림주 등에 지원이 가능함.
  - 최초 5년 계약을 하며, 2018 Farm Bill이 만료되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 달러를 수혜받을 수 있음.
  -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① 사업 시행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 지급받는 방식(Implementation payments), ②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10월 1일 이후) 매년 지급받는 방식(Annual payments)으로 구분됨.
  -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6개(2022년 기준, USDA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Fact Sheet 참조)의 기후변화 저감 혹은 보존활동<sup>3)</sup> 중에서 선택하여 실천해야 함.

2) 미국 농무부의 "USDA Offers Expanded Conservation Program Opportunities to Support Climate Smart Agriculture in 2022"(2022.1.1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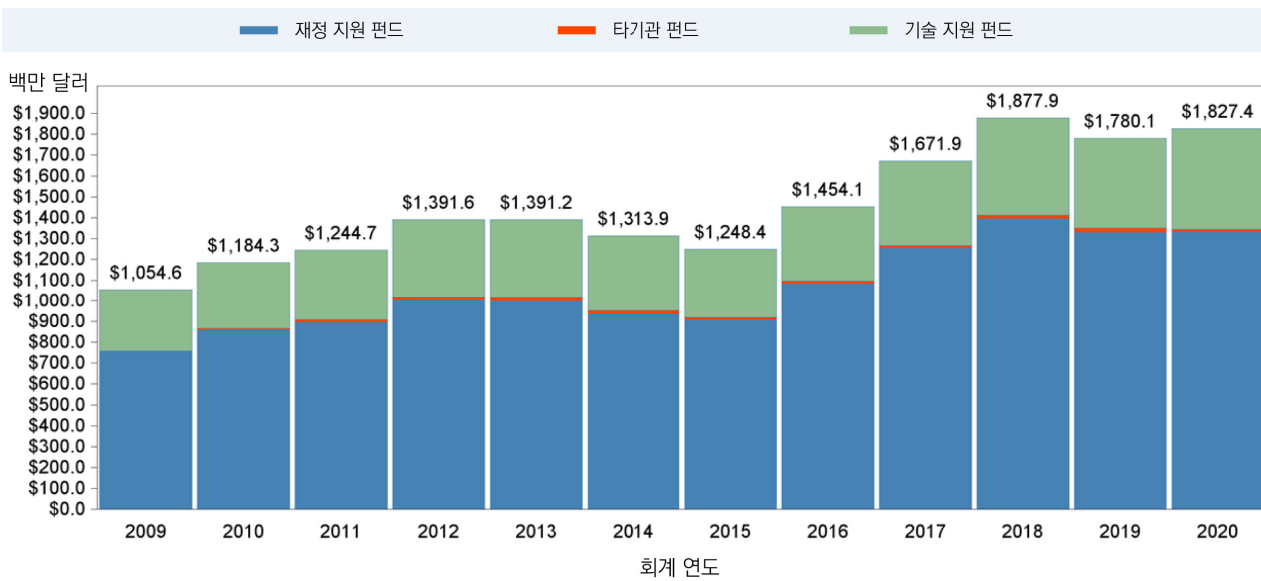
3) 대표적으로 피복 작물(cover crop)심기, 산림 구조 개선(forest stand improvement), 미량 관개(microirrigation) 등이 있음.



## 국제 농업 정보 : 미국

- 자연자원보존청은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복 작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11개 주에 3,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음.
  - 피복 작물을 심는 것은 농업 생산자에게 환경친화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토양에 대기 중의 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지님.
  - 2021년(회계연도)에 자연자원보존청에서는 2,300만 에이커에 피복 작물을 키우는 것에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함.
  - 이 협약은 Farmers For Soil Health, United Soybean Board,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National Pork Board 등 다양한 단체와 맺은 것으로 2030년까지 피복 작물을 이용하는 옥수수 및 대두 재배 면적을 두 배(3,000만 에이커)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의 펀드 구성 변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